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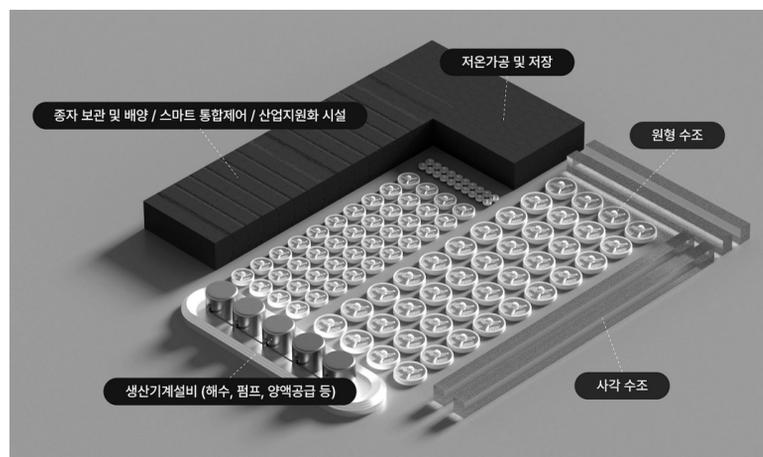
완도군, 해조류 특화 '원물 생산 인프라' 구축 나섰다

스마트 공장 건립 용역 착수 해조류 계절적 생산 한계 극복 육상 생산·가공 설비 구축

완도군이 해양바이오 원물 생산 기반시설인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건립에 나섰다.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타당성 조사·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주재한 보고회에는 이정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과 자원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스마트 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은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해조류는 화장품 원료, 동물 사료, 식품 첨가제, 제약 원료뿐만 아니라 환경 복원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차세대 해양바이오 자원이다. 최근 해수면과 수온이 상승하고 해양환경이 변하면서 해조류 성장이 차질을 빚고 양식 조건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조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대체 품종 발굴 등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해조류 성분은 물리·화학적 요인과 일조량, 계절, 장소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양바이오 소재를 사용하려면 무엇보다 원료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에 완도군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는 고기능성 해조류의 계절적 생산 한계를 극복하고 바이오 원료를 표준화할 수 있는 육상 생산·가공 설비를 구축해 원료를 기업체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완도군은 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타당성 논리를 도출할 방침이다. 또 공장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사업비를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해조류 생산부는 스마트 팩토리가 단순 양식 설비에 멈추지 않고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활용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되면 완도 해양바이오 기반시설과 연계로 인한 서남해권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표준화된 고기능성 해조류 원물을 연중 생산·가공해 산업계에 공급하는 선형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에 조성될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조감도. <완도군 제공>

목포 옥암·산정동 연중무휴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 의료 대란 장기화에 홍보 강화
목포시는 연중무휴 공공심야약국 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신도심권 1곳(옥암동비타민약국)과 원도심권 1곳(산정동 로템온누리약국)이 있다. 이들 약국은 국경일·공휴일 상관없이 일 년 365일 휴일 없이 운영한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심야 연장 영업도 한다. 목포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목포시 누리집과 소셜미디어(SNS), 목포지역 종합병원, 아동 진료 병원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 경로당과 동 행정복지센터, 각종 전광판에도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목포시 관계자가 지역 병원 게시판에 공공심야약국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목포시 제공>

해남 오시아노서 캠핑 트렌드 한 눈에

10월3일~7일 '캠핑관광박람회'... 1000개 팀 4000명 참여

해남군이 오는 10월3~7일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2024 해남 캠핑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번째 열리는 캠핑관광박람회는 1000여개 팀 4000여명의 캠핑객이 참여하고, 110여개 캠핑 관련 기업들이 캠핑카와 카라반, 최신 캠핑용품 등을 선보인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해변과 인접한 오토캠핑 시설과 넓은 잔디광장에서는 업체들이 실제 캠핑장과 같은 시설을 조성해 캠핑족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행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올해도 버팔로, 호상사 등 캠핑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캠핑·카라반·레저 등 다양한 분야 전시 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바비큐 존, 캠핑존, 캠핑카 시티투어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박람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캠핑문화 확산과 ESG 가치실현을 위한 흔적 남기지 않기 캠페인, 재활용·쓰레기제로 체험, 플로깅 등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설치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소화기 보급·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무안군이 남악복합주민센터와 9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무료 설치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화기를 보급하고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 지원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 대상 시설은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 주택, 20년 이상 노후아파트(일반 아파트 제외), 재난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인이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주거용 시설물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대상자 거주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무안소방서에서 보급할 예정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군, 직장인 위한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매주 오후 6~8시 편의 서비스
인감 증명·주민등록 등본 등 발급
영암군이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목요일 야간 민원실은 평일 주간시간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부부, 학생, 주민 등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6~8시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암군청 본관 1층 민원소통과에서 운영되는 목요일 야간 민원실에서는 여권 신청 접수·교부를 포함해 인감 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출입국 사실 등 민원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영암군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권 발급 수요에 대응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예정이다.



영암군청 민원실. 영암군 관계자는 "바쁜 일과로 주간 민원실 방문할 수 없는 영암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41억 들여 '스마트 수질 관리'

수질 계측기·정밀여과장치 곳곳 설치...누수 대응·원격점검도

진도군은 '스마트 관망관리 기반(인프라) 구축 사업'을 마무리해 수돗물 공급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스마트 관망관리 기반 구축사업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수도관리 기반조성 사업이다. 국비 29억 등 총사업비 41억원이 들어갔다. 진도군은 수도관을 세척할 수 있는 점검구, 적정 수질 파악과 조치를 위한 수질 계측기와 자동배출, 수돗물 이물질 제거를 위한 정밀여과장치 등

을 곳곳에 설치해 실시간 수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빠른 누수 대응을 위한 유량 감시 시설과 단순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연계 시스템, 원격점검 등도 도입했다. 이 체계는 훌륭한 어르신 안전 여부 파악에도 활용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 구림마을 100경 찾기 사진 공모전

11월 20편 선정
영암군이 지역의 숨겨진 관광명소를 발굴하는 '2024 영암 100경 찾기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3회째를 맞은 영암 100경 사진 공모전의 올해 주제는 '구림의 사계를 담다'이다. 한옥마을이 자리한 구림마을로 공간 범위를 정했다. 구림마을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의 사계절을 촬영한 미발표 사진 작품이다. 접수는 올해 촬영한 작품만 가능하다. 개인 또는 2인 팀이 최대 2편의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으나 중복 수상은 하지 않는다. 작품 접수는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서류와 사진 파일을 이메일(qkralwid2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은 응모작품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편의 입상작을 선정해 총 500만원을 시상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신안군 기록물, 이력 정보 전자 관리

클라우드 기반 서고관리시스템...유지비 절감·전산망 마비 예방

신안군은 기록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정보 저장 시스템) 기반의 서고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고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해 12월 완료한 뒤 올해 1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다. 이 시스템은 비전자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통해 기록물의 이관부터 폐기까지의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 전산 운영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고 시스템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신안군은 민간 클라우드에 서고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확장성을 높였다. 특히 장애 대응에 유연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을 도입해 최근 벌어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전산실 운영 때보다 자연재해와 전력공급, 보안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신안군은 앞으로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때 클라우드 기술을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 체계적으로 시스템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춰 이번 서고관리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 도입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구축해 공공서비스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우수상

국토정보 챌린지...건축물·토지 경계 측량 정확성·신속성 호평

영광군이 국토부가 주최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에서 지적측량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측량·드론측량 분야에 사도를 대표하는 공무원 등 50개 팀이 참여해 지적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경연을 펼쳤다. 영광군은 전남도 대표로 지적측량 분야에 경연해 현장의 건축물 및 토지 경계를 확인하는 측량성과의 정확성·신속성 등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용원 영광군 지적재조사사업장은 "전남도에서

매년 추진하는 지적측량 역량 강화 교육 등 선도적 토지 행정이 이번 경연의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 측량민원 처리,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매진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